

앞으로의 大區劃化 耕地整備 事業의 方向

嚴 泰 營

(韓國農工學會 副會長)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生産基盤의 整備는 農業用水의 確保와 供給을 前提로 하여 區劃, 用排水路, 農路 등의 物理的인 改造와 換地를 통한 消極的인 耕地의 集團化로 中小型機械化 營農基盤의 構築을 해 왔었다.

그렇지만 耕地整理事業은 우리나라 農業現代化에 中추적인 原動力이 되어왔었고 또한 農村地域 社會發展에도 至大한 影響을 주었다고 할 수는 있다.

이제 國內外的 急變하는 社會經濟 與件속에서 특히 UR에 따른 農水産物 開放壓力에 對應해야 한다는 立場에서 우리 農業基盤을 비추워 볼 때 區劃이나 農道の 狹小, 土工爲主의 用排水組織 등으로, 그 施設이 갖는 質的인 面에서는 물론이고 管理次元에서 너무나 落後되어 있다.

우리 農業이 外國과의 競爭力있는 農業으로서의 育成 接近이 不可避 해지고 있다는 現實을 直視할 때 이에 對處할 수 있는 보다 高度의 生産基盤의 整備가 早速히 要求된다.

이와같은 實情에 비추어 今後의 農業·農村의 體質強化는 耕地整理를 통한 區劃의 整備 및 再編에 의해 現代의 生産基盤으로 築造함이 時急한 課題라고 判斷된다.

이러한 大命題 下에 耕地整理事業을 施行하는 過程의 農耕地의 區劃 整備 및 再編은 當然히 耕地의 形質變更를 수반하는 것이며, 競爭力 있는 農業基盤의 構築을 위한 새로운 形態의 農耕地區劃의 大區劃 耕區의 要請과 多樣한 區劃의 共存이 必要하며, 또한 整備의 水準에 있어서도 畝의 汎用化에 對應 되도록 高度化 되어야 할 것이다.

즉 米作을 長期的 또는 安定的으로 維持하기 위해서는 構造政策에 의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의 米作은 自立化가 必要하며 米穀의 生産價를 현저하게 低下시킬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生産性的 획기적인 向上이 必須條件이 된다.

이 生産性的 向上을 위해서는 논의 規模擴大가 가장 有効한 方策이 된다.

이 때 단순한 圃場의 集團化에 의한 코스트다운에는 限界가 있으며 充分한 方策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標準區劃인 耕區의 大區劃化가 實現되지 않으면 코스트다운은 實現될 수 없다.

經營規模는 一般적으로 擴大할 수록 有利하지만 거기에는 限界와 條件이 있다. 어쨌든 一筆地當 耕區의 飛躍的인 擴大에 의하지 않으면 國際적으로도 競爭할 수 있는 生産性的 向上에 연결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現在의 30a~40a의 標準區劃이 生産構造 및 農業機械化作業條件 속에서의 役割이 妥當했는지 與否를 검토해 볼 時期가 온 것이다.

앞에서言及했듯이 大區劃化耕地整理가 政策的으로도 必要하고 農家로 부터도 一定한 支持를 받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 事業이 急進展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몇가지 前提條件이 必要하다.

첫째는 農地의 流動化의 進展이다.

大規模經營이 進展되려면 農作業의 受委託을 包含하는 農地의 流動化가 不可缺하다. 그런 의미에서 農地의 流動化는 大區劃耕地整備의 前提가 된다.

大區劃 圃場에서의 大規模經營에는 近年의 科學技術을 導入한 새로운 技術이 必要하다.

例컨데 農業土木의 側面에서는 레저빔을 利用한 불도저에 의한 均平度의 向上, 暗渠排水에 의한 圃場의 排水能力強化 用排水의 파이프라인화와 물관리의 自動화 보다 多樣한 換地技法의 적용 등을 들 수 있고 農業機械의 側面에서는 汎用 콤파인, 大型 스프레이어, 高速移秧機, 播種機, 湛水 乾畝直播技術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技術을 구사한 高能率營農에는 그 技術을 吸收하고 活用할 줄 알고 감당할 능력이 있는 農家가 있어야 한다.

大區劃耕地整備를 實施하는 한편에서는 이러한 앞장설 農家를 育成해 나가는 것도 重要한 일의 하나다.

이러한 前提下에 앞으로 指向·發展시켜야 할 大區劃化 耕地整備는 그 方向이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첫째 大型高性能 機械化營農으로 生産費를 낮춰 競爭力 있는 産業으로 育成하기 위해서는 根本적으로 耕區의 大區劃化로 하여야 한다.

둘째 從來의 耕區單位의 均平整地에서 圃區 또는 農區單位로 均平하게 整地하여야 耕區는 地域實情과 營農條件에 따라 任意로 移動設置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土工量을 줄이기 위해 均平區 短邊方向을 地形의 傾斜方向에 一致시켜 工事費를 節減토록 한다.

넷째 畓에 田作物을 栽培하여 밭으로 利用할 때 流動的인 作目に 대해 既 設置된 固定的인 農道外에도 必要에 따라 農耕區에 臨時 耕作道를 設置하여 營農에 便宜를 圖謀토록 한다.

農地改良組合聯合會
理事嚴泰營